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 '문법' 영역 내용 제시 순서 고찰

김억조*

|| 차례 ||

- I. 들머리
- II.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 III.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내용 제시 순서
- IV.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구체화 실태를 고찰하였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구체화된 교과서 실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취 기준에 따른 교육 과정의 내용 제시 순서에 관해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교육과정 '문법'영역의 11개 성취기준이 교과서로 구체화된 순서는 각 출판사마다 달리 나타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활용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들은 순서대로 수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6권에 배치하였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약간 보완하여 제시한 것으로 연구 결과 1권이나 2권 정도에 배치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음운 영역의 교육과정은 1,2권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인문학부 교수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학년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셋째, 성취기준 9와 10처럼 서로 관련이 있는 성취기준은 선·후 관계를 비교하여 구성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교사들이 교과서를 재구조화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차후에 교과서를 편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국어 교과서,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성취기준, 학년군, 내용 제시 순서.

I. 들머리

이 연구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이 교과서로 구체화된 실태를 살펴보고 내용 제시 순서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1학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¹⁾ 2·3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²⁾은 2009년도에 총론이 개정·고시 되었고 교과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각론은 2011년도에 개정·

1)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도에 개정·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이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2013년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학년과 3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지만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다.

2) 이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으로 칭한다.

고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어과는 초·중학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2011학년도에 개정·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학년 개념이 없어지고 학년군³⁾과 집중이수제⁴⁾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나누어져 있던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이 연속선상에 존재([중 1-3학년])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기별로 편찬되던 중학교 교과서가 집중이수제로 인해 출판사마다 6권으로 편찬되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존에 출판되던 교과서도 학기별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6권이요 이번에 새로 편찬된 교과서도 6권이기에 때문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개념이 아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에 한 권씩의 교과서가 정해져 있었지만 집중이수제를 국어과에 적용할 경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집중이수제로 수업 시수를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에 두 권이 아니라 이보다 많게 혹은 적게 배울 수 있다.

중학교 국어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은 총 11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의 내용을 토대로 16종의 교과서⁵⁾에서 구현된 양상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로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편제 구조 개선을 위해 ‘학년군’, ‘교과(군)’ 접근을 시도하였다. 학년군 접근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학년별, 학기별 집중 이수율을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23).

4) 수업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의 이수시기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이수하게 하는 방식(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23 각주 9).

5) 연구자가 검토한 교과서는 2012학년도 하반기에 일선학교에 교재 선정용으로 배포된 선정본 교과서이다.

또한 향후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시 순서를 재고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장에서 2009 개정 ‘문법’ 영역의 내용 성취기준을 2007 개정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3장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의 제시 순서에 관해 논의를 펼친 후 4장에서 마무리한다.

II.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2011년에 개정·고시된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위계화 원리에 따라 학년군별 내용 체계를 구성⁶⁾하였는데 먼저 중학교 성취기준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군 성취기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춘다. 상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호 작용하고 국어 생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국어 문화의 세계로 넓혀 간다.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밑줄_필자).

중학교에 해당하는 [1-3학년군]의 성취기준을 통해 ‘일상생활과 학습에

6) 학습 위계화 원리에 따른 교육 내용 선정 원리에 관해서는 이관규(2006: 41-46) 참조.

7) 성취기준은 제7차에서는 ‘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였다. 2007 개정 에 따르면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내용’보다는 ‘성취 기준’이 적합하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20 각주3)고 판단하여 2009 개정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임이 드러난다. 이것은 중학교 학생들이 국어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도달해야 할 수준의 의미이고 (허경철 외, 1995: 304-305) 그 중 문법 영역에서는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문법’ 영역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어 운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어 발전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 운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 ‘국어 발전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성취기준’을 11개 제시하고 있다. 이 성취기준을 2007 개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7 개정’과 ‘2009 개정’의 성취기준 비교

영역	2009 개정 성취기준	2007 개정 성취기준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9-문법-(1)】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을 이해한다.
어문 규범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고등학교 『문법』- (7) 어문 규정이나 표준 화법과 같은 발음, 단어, 문장, 담화와 관련한 규범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어생활 속에서 잘못 적용된 예를 학습자가 찾아 내어 교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운	(2)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4)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9-문법-(2)】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10-문법-(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단어·품사	(5)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6)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8-문법-(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7-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문장	(7)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9-문법-(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7-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의미·담화	(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10)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8-문법-(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8-문법-(5)】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9-문법-(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국어의 역사	(11)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이해한다.	【6-문법-(4)】 한글의 가치와 의의를 알고 우수성을 설명한다.

<표 1>을 통해 ‘2007 개정’과 ‘2009 개정’이 큰 맥락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바뀌었다.

언어의 본질 영역에서는 2007 개정에서는 언어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국어의 언어적 보편성을 알고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하여 국어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교육과학기술부, 2008: 95)하였는데 2009 개정에서 ‘언어의 기능’ 면이 추가되었다.

어문 규범 영역에서는 2007 개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문법』과목에 편성되어 있었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는데 2009 개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 교육과정 내용 면에서 학생들이 ‘국어생활 속에서 잘못 적용된 예를 학습자가 찾아내어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은 2007 개정이나 2009 개정 모두 같다.

음운 영역에서는 2007 개정이나 2009 개정 모두 두 개의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다. 성취기준 (2)와 관련되는 성취기준은 2007 개정에서 9학년의 성취기준으로, 성취기준 (4)와 관련되는 것은 10학년의 성취기준에 있었다. 이것이 2009 개정에서는 ‘음운 변동의 규칙성’ 탐구를 통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2007 개정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어·품사 영역의 성취기준도 두 개가 제시되었는데 성취기준 (5)와 (6)이다. (5)와 관련된 것은 2007 개정에서는 8학년에 제시되었고 (6)과 관련된 것은 7학년에 제시되었다. 성취기준 (6) ‘품사의 개념과 특성’은 공통으로 제시되었으나 2007 개정에서는 ‘분류 기준’이 더 들어 있고 2009에서는 ‘단어의 사용’과 연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문장 영역의 성취 기준도 2개가 제시되어 있다. 성취기준 (7)은 2007 개정에서는 9학년에 제시된 성취기준이다. 2007 개정에서 ‘문장의 짜임새’라고 표현했던 것을 2009 개정에서는 ‘문장의 구조’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성취기준 (9)는 문장에서 좀더 세부적인 문법기능을 담당할 요소에 관한 성취기준으로 2007 개정에서는 7학년 성취기준에 사동과 피동 표현에 대해 설정되어 있었다. 2009 개정의 성취기준은 높임, 시간, 피동·사동, 부정 표현 등 국어의 주요 문법 요소들의 형태와 의미 기능 등에 대해 실제 담화 상황 속의 다양한 문장 자료를 통해 탐구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이전의 교육과정보다는 훨씬 폭넓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⁸⁾.

의미·담화 영역의 성취 기준은 두 개가 제시되었는데 2007 개정에서는 세 개가 제시되었다⁹⁾. 성취기준 (8)은 2007 개정에서는 8학년 성취기준으로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7차에서부터 성취기준으로 있었는데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8) 2007 개정에서 이와 관련되는 성취기준으로 ‘고등학교 『문법』-③ 문장-④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가 있다. 2009 개정의 성취기준은 이 성취기준이 중학교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9) 성취기준 (8)은 어휘의미를 다루었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 ‘단어’ 영역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07 개정의 내용으로는 단어 영역에 가까우나 2009 개정의 내용으로는 ‘의미 관계’의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 영역에 가깝다고 보아 여기서 다룬다.

내용은 비슷하였으나 실제 교과서에서는 내용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김억조 2011: 29 참조). 2009 개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연계시키고 있다. 어휘와 의미 영역을 연계시키는 것은 학습 효율성 면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다. 성취기준 (10)은 국어 사용자가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2007 개정의 성취기준은 8학년과 9학년에 설정되어 있었다. 8학년에서는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관여함을 이해하기 위해, 9학년에서는 담화나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9 개정의 성취기준을 2007 개정의 성취기준과 비교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담화나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뛰어넘어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즉, 올바르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확장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국어의 역사 영역은 2007 개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6학년)에 제시되었다. 2007 개정에서는 ‘한글의 가치와 의의’로 표현되었는데 2009 개정에서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가치’로 바꾸어 표현했다. 성취기준 상으로 보면 ‘한글의 창제 원리’가 더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상 2009 개정 성취기준을 2007 개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Ⅲ.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영역 내용 제시 순서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성취기준이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 교과서에 구현된 ‘문법’영역 제시 실태

앞 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을 2007 개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성취 기준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의 교육과정을 간략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교과서에 구체화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1	2	3	4	5	6
좋은책신사고(민)	②①	⑥⑤	④③	⑧⑦	⑨	⑩①
(주) 미래엔	①⑥	②⑤	⑦⑧	④③	⑨⑩	①
비상교육(한)	①②	⑤⑥	④⑧	③⑦	⑨	⑩①
두산동아(전)	①②	⑤⑥	③④	⑦⑧	⑨⑩	①
대교(장)	①②	⑥⑤	⑧⑦	④③	⑨⑩	①
금성출판사(박)	①②	⑤⑥	④⑧	③⑦	⑨	⑩①
비상교육(김)	①②	⑥⑤	④⑧	⑦③	⑨	⑩①
(주)교학사	①②	⑥⑤	⑧⑦	③④	①	⑨⑩
천재교육	①②	⑤⑥	④⑧	⑦③	⑨	⑩①
지학사	⑥⑤	①②	④⑧	⑦③	⑨⑩	①
좋은책신사고(우)	①②	⑤⑥	④③	⑦⑧	⑨	⑩①
천재교육	①⑥	⑤②	⑧④	③⑦	⑨	⑩①
천재교과서	①⑤	②⑥	④⑧	③⑦	⑨⑩	①
두산동아(이)	①②	⑥⑤	③④	⑧⑦	⑨⑩	①
창비	⑥⑤	①②	④③⑦	⑧	⑩⑨	①
비상교과서	①②	⑥⑤	④⑧	⑦③	⑨	⑩①

〈표 2〉를 통해 11개의 성취기준이 6권의 교과서에 고루 편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성취기준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취기준 ①은 14종류의 교과서에서 1권에 구체화되었고 2종류의 교과서에서 2권에 구체화되었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은 ‘문법’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로 1학년에서 다루게 될 1,2권에 구체화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성취기준 ②는 11종류의 교과서에서 1권에 구체화되었고 5종의 교과서에서 2권에 구체화되었다. 국어 음운 체계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성취기준인데 이는 말소리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특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추상적이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게 자음과 모음의 성질과 분화 기준을 표로 정리하여 학습하게 하는 것은 추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고해 보아야 한다.

성취기준 ③은 5종의 교과서에서는 3권에 구체화되었고 11종의 교과서에서는 4권에 구체화되었다. 국어 어문 규범의 원리를 알고 이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성취기준이다.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어문 규범을 학습하여 교양 있는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준 ④는 13종의 교과서에서는 3권에 구체화되었고 3종의 교과서에서는 4권에 구체화되었다. 이 성취기준은 음운 변동과 발음의 원리에 관한 것이므로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아 다소 추상적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준 ⑤는 3종의 교과서에서는 1권에 구체화되었고 13종의 교과서에서는 2권에 구체화되었다.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단어를 소재로 이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준 ⑥은 4종의 교과서에서는 1권에 구체화되었고 12종의 교과서에서는 2권에 구체화되었다. 이 성취기준은 단어들을 품사별로 분류해 보

고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를 품사별로 특성을 지어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학습한다는 입장에서 저학년에도 편성하는 것이 좋다.

성취기준 ⑦은 12종의 교과서에서는 4권에 구체화되었고 4종의 교과서에서는 3권에 구체화되었다. 이 성취기준은 단어보다는 큰 단위인 문장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화자나 필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반영할 때 다양한 방법을 구성하도록 이것이 문장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어나 품사 다음에 학습요소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성취기준 ⑧은 11종의 교과서에서는 3권에 구체화되었고 5종의 교과서에서는 4권에 구체화되었다. 이 성취기준은 국어 어휘의 유형과 의미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단어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들의 관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3권이나 4권의 내용으로 적합하다.

성취기준 ⑨는 15종의 교과서에서는 5권에, 1종의 교과서에서는 6권에 구체화되었다. 이 성취기준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성취기준이다. 즉, 높임, 시간, 피동·사동, 부정 표현 등 국어의 주요 문법 요소들의 형태와 의미 기능을 실제 담화 상황 속의 다양한 문장 자료를 통해 탐구하도록 하는 성취 기준이다. 그러므로 5권이나 6권의 성취기준으로 적합하다.

성취기준 ⑩은 7종의 교과서에서는 5권에, 9종의 교과서에서는 6권에 구체화되었다. 이 성취기준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담화의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연관된 성취기준이 또 있으므로 이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성취기준 ⑪은 15종의 교과서에서 6권에 구체화되었고 1종의 교과서만 5권에 구체화되었다. 이 성취기준은 한글의 창제원리와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심이므로 한글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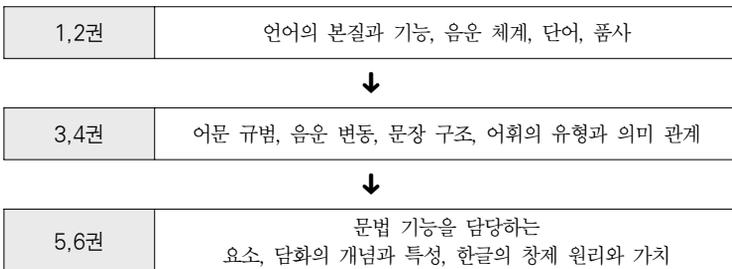
요하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한글 창제 원리가 응용되고 있는 것이 없는 지를 살펴보고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교과서마다 한두 가지의 성취기준을 고루 배치했으며 별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앞의 성취기준 11개가 16종의 교과서에 구체화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학년별 성취기준 구현 양상

권	성취기준	비고
1, 2	1, 2, 5, 6	
3, 4	3, 4, 7, 8	
5, 6	9, 10, 11	

〈표 3〉은 중학교 3년 동안 각 학년별로 2권의 교과서를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학습하게 되는 성취기준을 제시한 표이다. 16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성취기준별 구현 양상을 학년별로 종합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내용으로 바꾸어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년별 '문법' 영역의 내용

[그림 1]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1학년에서 언어의 본질과 기능, 음운 체계, 단어, 품사에 관한 내용을 배운 후에 2학년의 내용인 어문 규범, 음운 변동, 문장 구조,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배우게 된다. 그 후 3학년에서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 담화의 개념과 특성,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2. 교과서에 구현된 ‘문법’ 영역의 문제점

첫째, 성취기준을 구현하는데 있어 추상적이고 내용이 어려운 음운 영역을 저학년에 배치한 문제점이 있다. 즉, 성취기준 2와 4는 말소리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취기준으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이었는데 그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성취기준을 구체화한 위계상 문제점이 있다. 성취기준상으로 성취기준 10은 성취기준 9보다 먼저 학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구체화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즉, 성취기준 9는 성취기준 5,7의 학습 요소인 단어나 문장 또는 성취기준 10의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학습한 후에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취기준 9가 성취기준 10보다 뒤의 내용이거나 동일한 권에 편성된 교과서가 9종류(교학사, 창비, 미래엔, 두산동아(전), 대교(장), 금성, 지학사, 천재교과서, 두산동아(이))이다.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 제시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심리적 기준이나 이전 학년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성취기준 11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이었으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기기와의 관련

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에 구체화된 성취기준에 대한 재구성 방안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문법’ 영역 성취기준 내용의 재구성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내용이나 거시적인 항목을 먼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장의 내용을 토대로 가장 거시적인 내용은 ‘언어일반’이다. 그리고 문장≥단어≥음운의 순서일 것이다. 물론 ‘의미’나 ‘담화’는 나눌 수 있는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세우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문장, 단어, 음운 중 가장 미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음운이다. 물론 그렇다고 거시적인 내용만을 모두 먼저 제시할 수는 없다. 16종의 교과서에서 이런 점들을 검토하여 11개의 성취기준을 고루 배치하였지만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취기준 내용 재배치

앞 절에서 성취기준 2는 1,2권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 재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언어의 발화에서 표면적으로 귀로 듣는 것은 음성이다. 즉, 음성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것이다. 음운은 귀로 들은 음성을 추상화하여 표기한 심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집단적인 것이다. 실제로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모든 언어의 실현은 물리적으로 연속적인 음성이지만, 이것을 이해할 때에는 불연속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음운을 변별하게 된다(김광해 외 1999: 80).

언어에 있어서 음성은 말소리의 최소 단위이고, 음운은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그러므로 음성과 음운의 개념 차이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변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김광해 외 1999: 79).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음성과 음운의 개념에 대한 구분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모음 사각도를 통해 단모음의 위치를 변별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모음과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입 안의 좁은 공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적는다는 것은 거의 암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음운’은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와 관련된 단원이 모든 교과서에서 중학교 1학년이 배우게 되는 1,2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대개 음운 학습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어의 음운 체계를 탐구하면 말소리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말소리와 관련되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가: 60)고 하였으나 문장이나 단어를 먼저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이관규 2010: 185). 즉, 문장이나 단어보다 음운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달 순서를 고려한다면 음운을 가장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성취기준 2에 관한 내용은 2학년이나 3학년의 지도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평가기준(남민우 외 2012: 19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용 :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할 수 있다.

표준발음법을 이해하고 발음의 원리대로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다.

위 성취기준은 학생들에게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표준발음법을 이해하고 발음의 원리대로 발음’할 것을 요구한다. ‘표준 발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2010년과 2011년에 실시된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에 출제된 바 있다. 2011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선다형 5문항 중에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70.21%로 가장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다형으로 출제된 ‘문법’ 영역의 문항 모두 예상 정답률이 ‘중’이기 때문에 이 문항이 특별히 어려웠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중학교 3학년에게 ‘표준 발음의 원리’가 어려운 학습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과 관련된 것은 2011학년도 고등학교 11번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항은 탐구 학습을 전제로 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음, 모음, 음운 등 문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음운 변동의 원리를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출제된 문제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면 기초학력과 기초미달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¹⁰⁾. 이 문항은 <자료>에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답지에 제시되어 있는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것으로 실제로 기초학력 학생들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이 문항을 거의 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미경 외 2011: 194). 이처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편성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6권에 배치된 성취기준 11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취기준 11이 구현된 16종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10) 우수학력: 89.48%, 보통학력: 64.35%, 기초학력: 30.86%, 기초미달: 13.06%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훈민정음에서 뚜렷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내용 없이 현대 학자들의 풀이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본문’을 통해 읽기 내용을 제시한 후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이루는 근간은 아래 내용이다.

<자음자>

상형의 원리 : 글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

가획의 원리 : 소리남이 조금 세므로 획을 더하였으며……소리에 따라 획을 더한 까닭은 모두 한가지이다.

자음자는 이 두 원리에 의해 기본자와 가획자로 나눌 수 있다. ‘ㄱ’을 예로 들면 기본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고, 여기서 ‘ㄱ’의 가획자가 탄생하게 된다. 다음은 우리나라 휴대폰 중 엘지전자에서 쓰고 있는 ‘나랏글’ 자판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ㅣ
획추가	—	쌍자음

(그림2) ‘나랏글’ 자판

이 자판에 표시된 여섯 개의 자음 중 ‘ㄹ’을 제외한 다섯 글자는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기본자이다. 가획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자를 누른 후 획추가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 원리를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그대로 원용

한 것으로 중학생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모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모음자>

상형의 원리 : ·, 一, |

가획의 원리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모음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우선 모음은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상형의 원리에 의해 ‘·, 一, |’ 세 글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다음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휴대폰 자판이다.



(그림3) ‘천지인’ 자판

스스로 ‘천지인’ 자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모음이 3글자 뿐이다. 다른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글자를 합성하여 만드는 것으로 휴대폰 자판에서 사용되는 것은 훈민정음에서 만든 가획의 원리를 모음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교육에서 다룰 내용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이자 기준이 되는 것이 ‘학습자’이기 때문에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내용을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의 학생들은 정보화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들이 훈민정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은 이 기기에 아주 익숙하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의 원리에 익숙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취기준 11의 교육내용이 구체화된 교육내용은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 6권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1,2권으로 배치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성취기준이 저학년의 교육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난 교육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 교육과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7 개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6학년)에 제시되었다. 물론 2009 개정에서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가치’로 2007 개정에서 제시했던 ‘한글의 가치와 의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창제 원리’라는 부분이 다소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정보화 기기 사용으로 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성취기준 위계

중학교에 제시된 ‘문법’영역의 성취기준 중 기본 내용과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심화된 내용을 제시하는 성취기준이 있다. 먼저 성취기준 2와 4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취기준 2 :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4 :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2는 음운 체계에 관한 것이고 성취기준 4는 음운 변동에 관한 것이다. 음운 변동은 기저의 음운 형태가 표면의 음성 형태로 실현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음운의 공시적 변이를 나타낸다. 이 공시적인 음운의 변동

은 일정한 조건을 수반하는데 이 조건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성취기준 4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성취기준 4의 선행 학습으로 성취기준 2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16종의 교과서에서 성취기준 2가 4보다 먼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성취기준 2가 기존 교과서에서는 1권이나 2권에 구체화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한 학습내용이 고학년의 교육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면 성취기준 4는 성취기준 2 뒤에 배울 내용으로, 즉 그와 같은 학년의 뒷단원이나 그보다는 상급학년의 교육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취기준 9와 성취기준 10의 순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성취기준 9 :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다.

성취기준 10 :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두 성취기준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성취기준 9보다는 10을 먼저 학습해야 하거나 동일한 단원에 편성하여 연관성 있게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난 후에 ‘담화 상황에 맞게’ 혹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화’를 여러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성취기준에서 ‘담화’의 정의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담화를 ‘문장보다 큰 단위’, ‘이야기/발화’, ‘언어행위’, ‘텍스트/문맥’ 등 여러가지 층위에서 정의(신현숙 1997: 60-63)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화’를 여러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취기준 9와 10에 나타나는 ‘담화 상황에 맞게’나 ‘담화 상

황에 적합한’에서 ‘담화 상황’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물론 언어 사용자를 고려한 모든 상황(신현숙 1997: 64)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 출판된 교과서 중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여 편찬된 교과서가 8종류이다. 즉, 동일한 권에 이 두 성취기준을 편성한 교과서가 8종류인데 이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일한 단원에 편성

성취기준9, 10 순서 : 교학사, 두산동아(전), 대교(장), 지학사,
두산동아(이),

성취기준10, 9 순서: 창비

* 다른 단원에 편성

성취기준9,10 순서: 천재교과서, 미래엔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16종의 교과서 중에서 성취기준 9보다 성취기준 10을 먼저 구체화한 교과서는 단 한 종(창비) 뿐이다. 하지만 성취기준 9와 10을 동일한 단원에 편성하여 ‘담화’를 한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다음의 ‘단원 여는 글’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다양한 담화 상황 속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힌다.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공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공부한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훌륭한 국어 화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교학사 6권 121쪽)

성취기준 9와 10에 나오는 ‘담화’의 의미 범위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과서 편찬과

정에서 이 둘을 구분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교육내용을 다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권	언어의 본질과 기능,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 단어, 품사
↓	
3,4권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 음운 체계, 문장 구조
↓	
5,6권	어문 규범, 음운 변동, 담화의 개념과 특성,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

(그림 4) 성취기준

[그림 4]와 같이 언어일반을 먼저 제시하고 그 후에 학습자의 발달 순서에 따라 단어나 문장 성분을 학습한 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히고 음운의 체계를 학습한 후 어문 규범을 학습하도록 구성하면 난이도, 복잡성에 부합(조수정, 2011: 69-70)하는 내용 구조화가 될 것이다

IV. 마무리

이 연구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구체화 실태를 고찰하였다. 2장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3장에서 구체화된 교과서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시 순서에 관해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이 학년군으로 묶여 있었으나 16종의 교과서에서 ‘문법’영역의 성취기준을 제시한 순서는 거의 비슷하였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 음운체계, 단어, 품사를 1,2권에 배치하였고 어문 규범, 음운 변동, 문장 구조,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는 3,4권에 배치하였으며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 담화의 개념과 특성,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는 5,6권에 배치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둘째,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6권에 배치하였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약간 보완하여 제시한 것으로 연구 결과 1권이나 2권 정도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성취기준 9와 10처럼 서로 관련이 있는 성취기준은 선·후 관계를 비교하여 구성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교사들이 교과서를 재구조화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차후에 교과서를 편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2011년.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_____,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5】』,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 김미경 외,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 _____,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 김수엽, 『국어 교육의 바탕과 속살』, 나라말, 2005.
- _____, 『배달말 가르치기』, 나라말, 2006.
- 김억조, 『개정 교육과정 ‘문법’영역의 7학년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21호, 국제언어학회, 2010, pp.49-87.
- _____,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 구현 양상-8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pp.25-52.
- 김정우, 『시 수용 능력 평가 문항 분석 연구』, 『국어교육연구』 30, 국어교육연구소, 2012, pp.107-140.
- 남민우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 송현정, 『국어 교과서 검정제에 관한 실태 분석과 도입의 방향 탐색』, 『이중언어학』 28, 이중언어학회, 2005, pp.161-183.
- 신현숙, 『21세기 담화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 의미학』 제1집, 한국어의미학회, 1997, pp.59-84.
- 윤여탁,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신청어문』 V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pp.531-552.
- 이관규,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2002.
- _____,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의 상관관계 -문법 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와 관련하여-』, 『한국어학』33권, 한국어학회, 2006, pp.37-60.
- 이관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에 대한 문법 내용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

- 45집, 거레어문학회, 2010, pp.183-206.
- 이경현, 『학습자를 고려한 문법교육내용 위계화 -중학교 국어과 문법단원 분석을 중심으로-』, 『문법교육』7권, 한국문법교육학회, 2007, pp.111-144.
- 이동혁, 『문장의 의미 해석을 위한 의미영역의 역할』 『한국어 의미학』 제26집, 한국어 의미학회, 2008, pp.183-209.
- 이문규, 『문법 교육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내용』, 『언어과학연구』 46, 언어과학회, 2008, pp.149-170.
- 임지룡,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제21집, 한국어 의미학회, 2006, pp.1-29.
- _____, 『국어 어휘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 제33집, 한국어 의미학회, 2010, pp.259-296.
- 조수정,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방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영환, 『언어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5.
- 최용환,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적 변환론』, 『국어교육연구』 제45집, 국어교육학회, pp.321-346, 2009.
- 최호성, 『교육과정 및 평가-이해와 응용』, 교육과학사, 2008.
- 허경철 외, 『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상세화 및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5.

《교과서》

- 김종철 외(2012). 『국어』 ①~⑥권. (주)천재교과서.
- 김태철 외(2012). 『국어』 ①~⑥권. (주)비상교육.
- 남미영 외(2012). 『국어』 ①~⑥권. (주)교학사.
- 노미숙 외(2012). 『국어』 ①~⑥권. (주)천재교육.
- 민현식 외(2012). 『국어』 ①~⑥권. 좋은책신사고.
- 박경신 외(2012). 『국어』 ①~⑥권. (주)금성출판사.
- 박영목 외(2012). 『국어』 ①~⑥권. (주)천재교육.
- 방민호 외(2012). 『국어』 ①~⑥권. (주)지학사.
- 우한용 외(2012). 『국어』 ①~⑥권. 좋은책신사고.

- 윤여탁 외(2012). 『국어』 ①~⑥권. (주)미래엔.
이관규 외(2012). 『국어』 ①~⑥권. (주)비상교과서.
이도영 외(2012). 『국어』 ①~⑥권. (주)창비.
이삼형 외(2012). 『국어』 ①~⑥권. 두산동아(주).
장수익 외(2012). 『국어』 ①~⑥권. (주)대교.
전경원 외(2012). 『국어』 ①~⑥권. 두산동아(주).
한철우 외(2012). 『국어』 ①~⑥권. (주)비상교육.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presentation order of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 about Grammar

Kim, Eok-Jo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about the present order of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 contents about Grammar. It was published by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2009 revised version. The textbook is a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that embodies the intention and content of the curriculum. It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domain of education. We will select a new kind of textbook from 16 kinds of Korean textbooks last year. And, we will use first-year-student in this year.

I studied the grammar domain that is a part of Korean education curriculum of 2009 revised version in Chapter II. Second. in chapter III. I am researching about the contents presentation order of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 about Grammar. As a result. I found it was very different in every textbook. So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select very carefully the textbook for teaching students. And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t each teacher study the 7th Korean education curriculum(revised version) in 2009.

Key Word : Korean Textbook,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2009 revised version, grammar domain, achievement standards, grade band, contents presentation order

김억조

소속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인문학부 교수

주소 : (780-714)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전화번호 : 054-770-2121 / 010-3556-1962

전자우편 : ukjo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